

제약바이오 “약가개편 강행 땐 제조생태계 붕괴”

내달 건정심 앞두고 노사 반발
제네릭 약가 53.55→40%대 인하
향남단지 “국산약 30% 생산기지”
R&D·설비투자축소, 라인폐쇄 우려
필수약 품절·수입의존 심화 경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혁신 연구개발(R&D) 축소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고용 불안 등 산업 기반인 ‘제조생태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 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 화성 향남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비대위 주최 ‘노사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제네릭의약품 약가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한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비대위를 비롯해 한국 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 위원단장,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22일 경기 화성 향남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비대위 주최 ‘노사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은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약가제도 개편안의 위험과 과장을 집중 조명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약품 생산 핵심 기지다.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밀집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중단, 생산 라인 폐쇄 등 사실상 생산 현장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자급력 상실은 결국 고가수입의약품 의존도 높여 의약품 공급 불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산업 전체 종사자 중 10% 이상의 실

직 등 인력 감축도 예상된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서정오 전무는 “향남제약공단은 국산 의약품의 30%를 생산하는 전초 기지이며 경기도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클러스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무는 “설비 투자가 고사될 위기”라며 “국내 제약사 적자 전환은 시간 문제이기에 의약품 개발 연구, 설비 고도화 등은 사라지고 의약품 품절, 해외 의존도 심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보건 안보가 위험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고용 대란의 여파도 짚었다. 서 전무는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직원이 생업을 잃으며 이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환

산 시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노시를 불문하고 산업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보아야 한다”며 “제약사들이 제네릭의약품으로 얻은 수익은 곧 신약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위한 재투자 자원으로 캐시카우가 끊기면 혁신은 커녕 공장 가동 조차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와 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에 중점을 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노사 간담회에 함께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은 K 바이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약개발 도전과 실패 모두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보다 10배가 넘는 규모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

에이피알

뷰티기기 600만대 돌파
해외 판매 60% 넘었다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AGE-R)’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해외 시장 공략과 제품군 확대가 글로벌 판매 호조를 견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미국, 일본 등 기존 주요 시장 공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신규 지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해외 판매 비중을 높였다. 뷰티 디바이스 전제 누적 판매에서 해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제품군을 다양하게 구축해 왔다. 단일 효능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 목적과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스크린 케어 브랜드 ‘메디큐브’ 화장품과 병용 사용하도록 해 헤어 경험을 고도화했다.

특히 만능형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가 출시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정하 기자



에이지알(AGE-R) ‘결합형 디바이스’ 제품군
/에이피알

SK바이오사이언스, 차세대 에볼라백신 개발 가속화

MSD, CEPI서 3000만달러 지원
수율·열안정성 개선 공정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마크(MSD)가 전염병대비 혁신연합(C EPI)과 ‘자이르 에볼라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개발 파트너사로서 수행 중인 주요 과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CEPI는 MSD에 총 3000만 달러를 지원하며, MSD는 해당 자금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헬레만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 제조 공정 개선, 임상시험용 백신 개발 등 핵심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MSD가 보유한 자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존 아론 로팅겐 웰컴트러스트 CEO(왼쪽부터), 프리야 아그라월 마크 Health Equity&Partnerships부문 부사장, 리차드 헤센 CEPI CEO, 라만 라오 헬레만연구소 CEO, 김익중 SK바이오사이언스 BD2실장이 ‘차세대 자이르 에볼라’ 백신 개발 펀딩 및 협력에 대해 발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르 에볼라 백신(WHO-PQ 획득)의 기준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특히 의료·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이르 에볼라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의 수율을 높이고 열안정성을 개선한 제조공정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헬레만연구소는 개

량된 에볼라 백신의 임상 개발을 주도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 IDT바이오로지카는 백신의 개량된 원액 제조 공정과 이에 연계된 완제의약품 개발을 담당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 펀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공 백신 프로젝트의 핵심 실행 파트너로서, 자체 백신 생산시설인 안동 엘 하우스(L Hous E)에서 축적한 공정·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IDT바이오로지카와 협업해 임상용 백신 생산과 제조공정 고도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저소득국(LMIC)에서의 백신 경제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hy

‘할인광’ 프로모션 진행
유산균 등 최대 81% ↓

hy가 유튜브 웹 예능 ‘할인광’과 최대 81%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솔로몬코드’가 제작 및 연출하는 할인광은 방송인 황광희와 브랜드 실무자가 출연해 시청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직접 발표하는 방식의 커머셜 예능 콘텐츠다. 이번 행사는 품목은 총 21종으로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hy는 프로모션을 통해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리브 100억 유산균(1개월분)’을 정가 대비 67% 낮춘 7900원에 판매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높은 ‘발휘 발효홍삼K(30개입)’은 53% 할인 가격으로 4000세트 준비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1일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또 CP 도입 이후 전담조직 구성, 자율 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HK이노엔, ‘IN-B00009’ 3상 모집 완료

GLP-1 비만치료제 경쟁 본격화

HK이노엔(HK inno.N)은 지난 20일자로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치료제 ‘IN-B00009’의 국내 임상 3상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HK이노엔은 40주간의 투약을 연내 완료하고 신속히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K이노엔은 지난 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B00009’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첫 대상자 등록을 시작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총 313명을 모집했다. 이번 임상 3상은 강북삼성병원을 포함한 총 24개 의료기관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국내 성인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IN-B00009 또는 위약을 주 1회 투여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1차 평가지표는 기저체온 대비 40주 시점의 체중 변화율과 체중 감소율 5% 이상인 시험 대상자 비율이다.

IN-B00009는 2024년 글로벌 바이오 기업 사이월드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도입한 물질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광동제약,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광동제약은 지난 21일 광동과천타워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선포식에서 CP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신뢰도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내재화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상시 점검 체계에 기반한 선제적 위기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또 CP 도입 이후 전담조직 구성, 자율 준수 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선제적 사전 감시체계 작동 등 실질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신원선 기자 tree6834@